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25	02. 01	02. 08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득	최상우 형제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1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요

1. 함께 예배드께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교회 Spenden 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십시오.
4. 결산 공동의회 – 다음주일(25일)은 2025년 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5.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졸업 연주	조영재 형제(19일) 20시 음대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1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27장	다같이
기도 Gebet	-----	윤미경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1:6-8(구p1275) (Amos 1:6~8)	윤미경 자매
특별찬양 Sonderlied		정해욱 형제
교회사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모스서 1장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민족 간의 분쟁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보편적 선언입니다. 특별히 6-8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에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심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심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열방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도,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죄악, 네 가지 죄악”이라는 표현은 죄의 누적성과 고의성을 강조합니다. 블레셋의 인신매매와 폭력은 은밀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와 구조적 악까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 권력의 중심지를 직접 지목하십니다 이는 힘 있는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아모스 1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2.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